

서해와 만난 금강하구의 문화

이 해 준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장, 공주대 교수)



서해와 만난 금강하구의 문화

금강은 비단처럼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강 유역의 문화는, 한편으로는 서해를 통하여 북으로 한강, 남으로 영산강유역과 연결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독특한 지역성을 가진다.

금강의 본 줄기와 많은 지류들은 풍부한 수자원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제공하였으니, 금강에 연하여 발달한 새강과 낮은 구릉에는 비옥하고 넓은 농토가 펼쳐지고, 그 농토와 강에서는 풍요로운 물산이 생산되었다.

흔히 충청도 사람 하면 우선은 '순하고 온화한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로 인식된다. 바로 이 충청도 사람들의 인성은, 금강이 만들어준 천혜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배태된 것은 아닐까?

'백제문화'와 금강 유역

금강의 자연환경과 풍요를 배경으로 발달한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백제였다. 백제문화와 금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백제는 '바다와 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문화'로 불려져도 좋을 만큼 바다와의 인연이 깊다. 고대시대 서해와 금강은 문화의 수용과 교류, 전파의 길이었다. 백제는 이 길을 통하여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또한 완숙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 주었다.

백제는 금강유역의 토착 선사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고도의 선진문화를 더하여 하나의 백제문화로 승화시켰다. 고대 농경과 천혜의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발달하였던 백제 이전 토착문화를 아우르면서, 다시 중국의 다양한 전통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면서도 온화함과 섬세함이 겹쳐져진 백제문화의 토대

는, 금강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이었을 것이다.

백제 역사는 대부분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나는 때때로 한강에서 공주로 천도하던 문주왕은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였을까 하고 상상해 보곤 한다. 육로가 개척되지



| 위성사진으로 본 금강유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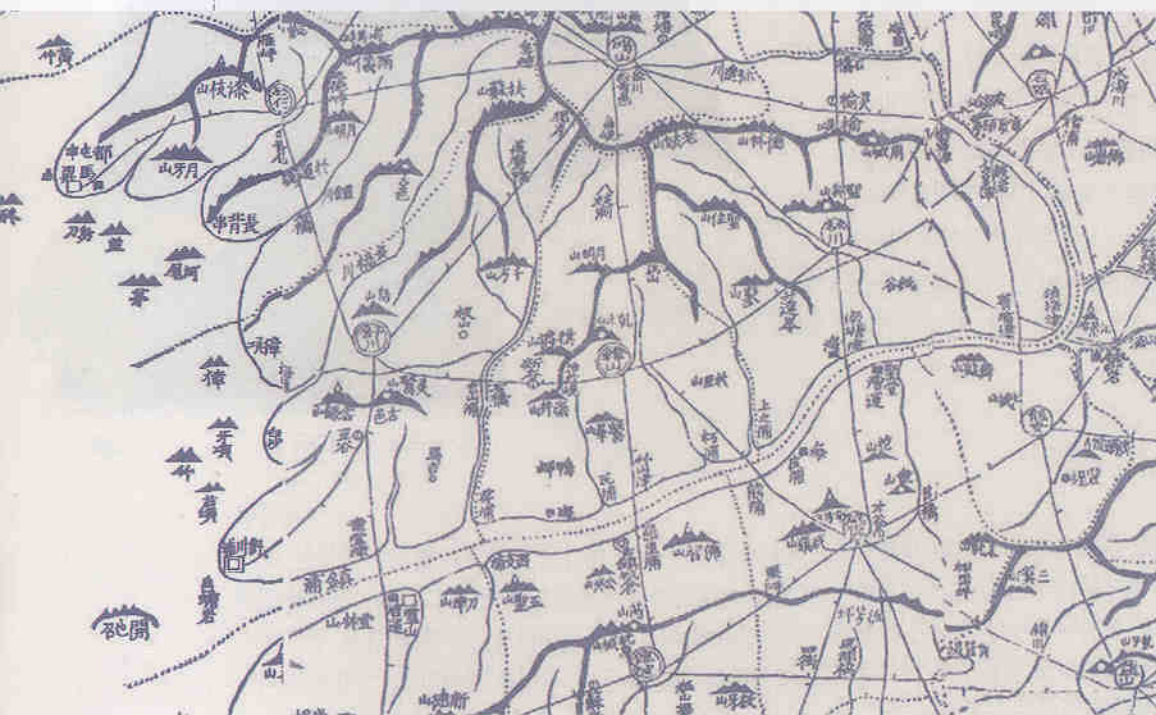
못했던 그 시기에, 王城의 대규모 물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육상으로 이동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 많은 물자와 인력을 일시에 이동하는 일이라면, 혹 대 선단을 구성하여, 금강하류 장항과 군산 사이를 통과하고, 상류로 올라가다가, 부여를 지나쳐서, 중류에 위치한 공주에 정착한 것은 아닐까?

그 후 백제문화가 일본에 전파될 때에도, 또한 왜인들이 이 고개를 숙이며 찾아오던 길도 바로 금강하구였다. 그리고 당 나라 군대도 이 뱃길을 통하여 침입했던 것이다. 비단 그뿐이 아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금강 하류의 뱃길은 충청도의 출입 관문이었다. 이 길을 통하여 이웃 지역과 문화와 정보를 서로 전했고, 사람들도 오고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는, 강한 토착성을 보여주

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문화가 교차하여 이루어낸 다
양함을 지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을 강경과 서천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기를 먹는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도저히 충청도 풍속으로 여겨지지 않는 금강하
류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인접지역과 부단히 교섭했던 문화적 교차점의 양상도
엿볼 수 있다.

금강을 나서서 서
해를 통하여 폭넓게
교섭했던 그 문화적
특성들은, 금강 상류
나 중류지역과 대비
되기도 한다. 부여
유왕산 놀이는 대표
적인 중로보기의 전
통에 해당하는 풍습
이다. 동시에 백제
마지막 의자왕의 애
달픈 설화로 얹혀 있
기도 하다. 유왕산
놀이가 제 모습을 간
직했을 때, 유왕산
일대는 사람들로 하
얇게 수놓아져 있었
다고 하며, 금강에는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금강하류도

유왕산 놀이와 중로보기

우선 문화의 교차지점으로서, 다양한 인접문화와 활발
하게 교류하였던 금강하류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자. 금
강하류는 충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이질적인 양
상들이 엿보인다. 여자들만의 강가나 갯가에서 지내는
기우제 풍습(도깨비장난)이라든가, 산역 후 뒷풀이에 개



▲ 부여 유왕산놀이 재현모습(부여군지)

돛배와 나룻배들이 장사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왕산 놀이의 풍속은 금강하류 지역의 민속적 특징으로, 서천 남산의 반보기 놀이를 비롯하여, 기산 숭정산, 화양 무제봉 등에서도 행해졌다고 한다.

‘저산팔읍’과 한산모시

저산팔읍은 보부상단의 상권 장악도, 문화교차와 교통로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저산팔읍’은 금강하류와 서해안의 여덟 고을을 가리키는 하나의 경제 및 생활문화권역이었다. 모시를 주요 상품으로 성장한 보부상단이 막강한 조직과 세력으로 관할했던 대표적 商圈으로, 그 가운데 한산 고을은 저산팔읍의 시작이자 거점으로 지목된다. (‘저산’은 글자 그대로 ‘茅産’으로 모시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한산, 서천, 비인, 홍산, 임천, 남포, 정산, 보령(혹은 부여)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茅山으로 쓰면서 山자 붙은 여덟 지역이라고도 한다)

한산모시는 섬세·단아·청아한 멋을 지녔고, 색깔이 마치 백옥처럼 희고 맑으며, 섬세하고 가벼워 여름철 옷

감으로 인기가 대단하였다. 지금은 한산모시의 역사와 전통, 그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한산면 지현리에 건립하였고, 1989년부터 매년 5월 모시축제도 열리고 있다.

한산에는 또 전통 토속주로 유명한 한산 소곡주가 있다. 흔히 ‘얹은뱅이 술’로도 통하며, 술맛이 좋고 돛수가 높으며, 청혈 해독 등의 약리작용으로도 유명하다. 전설로는 백제시대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심성과 밀접성을 기반으로 발생하여 전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국 3대 시장의 하나, 강경장

강경포, 금강하류에 발달했던 수운의 중심지. 일제시대 강경은 대구시장, 평양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다. 이 포구의 영광과 번성함은 금강하류 지역의 문화지리적 특징을 최대한 활용한 역사의 증거이다.

흙모래가 쌓여 금강 바닥이 얇아진 지금과는 달리, 18세기 중엽부터 호남과 호서에서 생산된 갖가지 농산물과 해산물은 금강을 거슬러 강경장에 쌓였다가 충청도 내륙과 경기도로 들어가고, 또한 내륙에서 생산된 특산물은 강경 포구를 경유하여 아랫 지방으로 퍼져갔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택리지』에서 이증환은 낙동강 하구의 칠성포, 영산강 하구의 법성포(전라도 함평현)와 사진포(전라도 고부군 흥덕현), 전주의 사탄과

함께 금강의 강경포를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손꼽으면서



▲ 강경전갈축제

바닷가 사람과 산골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물건을 내어 교역한다. 매양 봄여름 동안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을 때에는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밤낮으로 두 갈래 진 항구에 담처럼 벌여 있다. 한 달에 여섯 번씩 열리는 큰 장에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의 화물이 모여 쌓인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서 금강 남쪽을 가운데에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바다의 조수가 이곳까지 미쳤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셈이다.

군산항이 열린 1890년대 초에, 강경과 군산의 관계는, 마치 지금의 서울과 인천과 같았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도, 군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의 80%는 강경장을 통해 팔려나갔다. 또한 청주, 공주, 전주 지방에서도 일용 잡화를 사려고 강경장으로 모여들었다. 이처럼 당시 강경포의 상권은 충청남도도 말할 것도 없고 충청북도도 전라북도도 경기도 남부까지 미쳤던 것이다.

강경포가 단순한 포구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꼽히는 상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우선 금강이라는 대하천과 접해 있다는 입지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도 선박은 가장 우월한 운송수단이였다. 그런 까닭에 서쪽으로 바다로 통하고, 내륙으로는 금강 뱃길이 이어지는 강경과 같은 포구는 자연스럽게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강경포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는, 조선 제일의 곡창지대인 금강유역에서 생산된 미곡을 비롯하여, 면포·어염·수공업제품 등 다양하였다. 곡물은 서울에서부터 멀



▲ 1920년대 강경장의 풍경

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소비지로 공급되었다. 유리, 토기, 철물 등의 수공업제품, 전라도의 면포, 그리고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산물, 심지어는 함경도 원산에서 나는 북어까지 강경포로 운송되어 판매되었다. 곡물은 강경포에 모인 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고, 어염·수공업품 등 각지 특산물은 강경포로 들어와서 주변 지역에서 판매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번성하던 강경장도, 1905년 경부선 개통에 따라 금강 상류의 공주와 청주 지방이 상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흙모래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선박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더욱이 1912년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어류집산지로서의 기능도 잃게 되었고, 이어 1914년 호남선이 뚫림에 따라 강경장의 상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강경읍에서는 지난날 금강 연안 최대 하항으로서 영광스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형과 지세만이 아니라, 상권과 생업의 모습도 크게 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1997년부터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일환으로 '강경 전통맛깔절축제'가 매년 10월 중순경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강경에는 50여개의 젓갈점포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옛 젓갈시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밝혀지는 금강하류 고대문화유적들

이상의 논의는 금강하류의 특징적 모습들을 문화지리적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라면, 아래의 논의는 이 지역의 문화의 오랜 전통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금강하류지역의 문화는, 옛 왕도였던 공주나 부여의 명성에 밀려 별로 주목되지 못하였다.

물론 유승광 선생을 비롯한 여러 향토사가들의 활동으로, 많은 선사유적과 유물들이 발견 소개되었고, 향토지



| 봉선리 출토 유물들 |



| 봉선리 유적발굴광경 |

에서는 마한시대의 소국으로 비미국(卑彌國: 현재의 비인지역)과 치리구국(致利鞠國: 현재의 한산지역)이 비정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머물렀을 뿐이지, 그 실체가 규명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위 고대유적들이 속속 발굴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서천 오석리 선사유적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 유적과 출토유물이 발굴되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고 있는 시초면 봉선리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유적과 유물들은 서천, 혹은 금강하류지역의 문화상을 밝혀줄 귀중한 자료로서, 그 유래가 드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여나 공주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지역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십여 점에 달하는 환두대도(環頭大刀)와 장구형 횡병(橫瓶), 그런가 하면 다양하고 특이한 고분구조와 형태 등등은 고고학계의 새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이러한 중요 유적들이 발굴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유물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고대사를 밝히려 하면서도, 막상 그 유적이 그곳에서 출토되는 까닭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꾸어 말하면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역사적 환경, 즉 그 지역의 역사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할 뿐이다.

동성왕의 죽음과 마포촌, 우두성

지역민의 입장이나 지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기록한 원고지 30매 정도의 분량을, 나 같은 지역사연구자는 100매 정도로 정리할 만큼 주목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이나

지역민들은 적어도 300매 정도의 비중과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선리나 오석리 유적만 해도 그렇다. 현재 고고학계에서 거론하는 유적과 유물의 의미는 전국적인 학계의 이야기에서 머문다. 서천의 지역연구자들의 관심도 거기에 맞추어져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그것을 남보다 잘 써먹기 위하여 고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과거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고려하면서 유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유적이 출토되면서, 나는 평소에 궁금했던 서천과 관련된 몇 가지의 숙제가 어렵듯이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즉 지역사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강하류

武寧王諱斯摩 年大正二十二年也身長
八尺眉目如畫仁慈寬厚民心歸附年大在位
二十三年薨即位泰正月佐平首加據加林城
出降王斬之於白江
論曰春秋曰人臣無將將而必誅君苟加之元
惡大罪則天地所不容不即罪之至是自知難
免後誅之晚也
冬十一月遣達率優永帥兵五千襲高句麗水
谷城
二年春民饑且疫冬十一月遣兵侵高句麗
三年秋九月鞏鞏燒馬首柵進攻高本城王遣
兵五千擊退之冬無冰
六年春大疫三月至五月不雨川澤竭民饑發
倉賑救秋七月鞏鞏未侵破高本城殺虜六百
餘人
七年夏五月立二柵於高本城南又築長嶺城
以備鞏鞏冬十月高句麗將高老與鞏鞏謀欲
攻漢城進也於橫山下王出師戰退之
十年春正月下令完固隄防驛內外將食者歸

八尺眉目如畫仁慈寬厚民心歸附年大在位
二十三年薨即位泰正月佐平首加據加林城
出降王斬之於白江
論曰春秋曰人臣無將將而必誅君苟加之元
惡大罪則天地所不容不即罪之至是自知難
免後誅之晚也
冬十一月遣達率優永帥兵五千襲高句麗水
谷城
二年春民饑且疫冬十一月遣兵侵高句麗
三年秋九月鞏鞏燒馬首柵進攻高本城王遣
兵五千擊退之冬無冰
六年春大疫三月至五月不雨川澤竭民饑發
倉賑救秋七月鞏鞏未侵破高本城殺虜六百
餘人
七年夏五月立二柵於高本城南又築長嶺城
以備鞏鞏冬十月高句麗將高老與鞏鞏謀欲
攻漢城進也於橫山下王出師戰退之
十年春正月下令完固隄防驛內外將食者歸

| 삼국사기의 동성왕 관련 부분 |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마한의 소국 두 곳이 비정될 만큼 문화가 발달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당시대의 생활조건이 유리했던 금강과 서해에 연한 한산과 비인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백제시대로 이어진 이들 토착세력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의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또한 한강유역의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이후 이 지역의 세력들의 입지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 유적들이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금강하류 지역은 전략지리적 요충이자, 배후 기반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정치세력은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였고, 한강유역 세력과는 인연이 없었을 것이므로, 순순히 백제왕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동성왕과 무령왕대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동성왕은 즉위 8년(486)에 우두성을 쌓고, 자주 이곳으로 사냥을 나왔다. 여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우두성은 한산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동성왕 23년(501) 11월 왕이 부여 서천에서 사냥을 하다가 마포촌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이때 가림성(현재 임천의 성흥산성)에서 모반한 백가의 자객에게 목숨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무령왕은 병마를 거느리고 우두성에 이르러 백가를 토벌하고 참형하여 백강에 던졌다고 기록하였다.

장황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예시하는 것은,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하여 백제시기 서천지역의 정치적 동향이 설명될 수 있고, 봉선리 유적은 그러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공주백제의 왕실에 의하여 한산지역이 개척될 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었고, 자주 사냥을 나와

우익세력으로 삼거나 회유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가의 반란을 토벌할 때에는 전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선리 유적이나 최근 발견되는 서천지역의 다른 발굴 결과들은, 바로 그러한 당시 서천 한산지역 세력들의 당시 문화모습이다. 필자는 다양하고 특이한 유물 성격이, 그러한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들 유적의 성격이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보다 정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지역의 문화모습 해석에 보다 유용하도록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동성왕이 묵었던 마포촌(馬浦村)을 단순한 마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삼국사기의 마포촌은 뒤에 마산현으로 이름을 바꾼 한산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인 오층석탑의 비밀



| 비인오층석탑 |

역사상 서천과 금강하류지역이 또 한번 부각된 것은 백제 멸망기였다. 주지하듯이, 백제의 충신 성충과 홍수가 당나라의 수군을 막을 곳으로 지목한 곳이 바로 금강하류의 기벌포였다. 그런가 하면, 한산 건지산성이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주류성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또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당과 신라가 한판 싸움을 벌일 때에도 이곳 기벌포에서 설인귀의 당군을 격퇴하였다고 하는 등등, 그야말로 격변기 역사의 현장이었던 곳이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유적이, 바로 비인의 5층 석탑이다. 혹자는 작은 석탑 하나를 너무 강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나, 백제 패망의 여한과 함께 백제문화의 계승을 보다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경주의 석가탑의 전설이나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아버지가 초빙되었다든가, 또는 일본에



| 가정집 목판 |

석탑기술자를 파견하였듯이, 백제의 석탑은 오랜 전통과 기교로 유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백제시기에 조성된 백제탑은 부여의 정림사탑과 익산의 미륵사탑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탑의 조형기법을 이은 소위 '백제계 석탑' 들은 고려시대에도 여러 지역에서 조성되었고, 비인의 오층 석탑이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백제계의 형식을 가진



고려석탑으로는 충남지역에 비인 5층석탑과 함께, 부여 장하리 5층석탑, 공주 계룡산 5층석탑, 공주 마곡사 5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5층석탑 등이 전해진다.

이들 백제계통의 석탑들이 대부분 고려시기에 백제의 옛터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백제계 석탑들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주로 구조와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비인 5층석탑이 왜 고려시기에, 비인지역에서 만들었겠느냐?’ 하는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고려시대 서천군 일대의 판도 변화를 주목한다. 고려초기 서천지역에 터를 잡았던 고을로는, 현재의 서천(서림군)과 한산(마산현), 비인(비인현)이 있었다. 문제는 고려초에 서림군이 부상하면서 비인현을 영속시키고, 마산현은 이웃한 가림군(부여 임천)에 영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나말려초의 격변기에 혹 비인현 지역이 친백제적 성향으로 왕건 세력에 의하여 견제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나아가 그러한 반향으로, 뒤에 비인의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백제계의 비인 5층석탑으로 재현된 것은 아닐지 추측할 수도 있다.

아직은 추정에 머물지만, 이 백제계 석탑은 고려시대에 백제탑을 만드는 ‘비인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적인 것이다. 그러나 비인의 5층 석탑은 고려시기 중요한 서천지역의 역사변천과 당시 비인지방 세력이 지니는 성격을 추적하는 자료로 보아야 한다.

곳곳에 문화유적과 볼거리가 즐비

서천지역의 인물사를 이야기하면, 전근대인물로는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 선생이 먼저 손꼽힌다. 가정 이곡(1298-1351)은 과거에 급제하고 원나라에서 벼슬살이를



목은 영당

하면서, 원 황제에게 공녀금지를 청하여 중지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아들은 바로 고려말 삼은(三隱) 가운데 한분으로, 우리 나라 성리학의 태두가 되는 목은 이색(1328-1396)이다. 관련유적으로 기산면 영모리에 문헌서원이 있으며, 목은의 영정과 묘소, 신도비, 문집 목판 등이 잘 남아 전해지고 있다. 현대인물로는 한말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다.

한편 최근 복원 정비된 장암진성은 옛 금강하구의 수



철새도래지

군진성으로 만호가 배치되었던 군사요충이자 수운로의 요충이었다. 한편 마량포구는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조망과 동백꽃, 그리고 마량당으로 유명하다. 흔히 자연관찰지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도 금강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는 현장이다. 동백정은 한산읍성의 문루를 옮겨 지었다고 전해진다. 서해를 조망하는 최고의 경관조건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 앞에는 마량당이 있다. 지금은 마량마을의 당으로 축소되었지만, 예전에는 이 해역을 지나는 어선과 조운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던 명소였다.

요즘 젊은 층의 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는 곳도 금강하구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서천 신성리 갈대숲에서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촬영되었다. 갈대숲과 금강이 함께 어우러진 하구둑의 철새떼는, 또한 사진작가들과 아마추어 동호인들, 그리고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철새는 12월과 1월 사이에는 절정을 이루고, 이곳은 관광객과 탐조객이 줄을 잇는 명소가 된다.

충남의 서해안 끝, 아니 금강이 서해와 만나는 곳, 서천. 우리는 이곳 서천에서 또 다른 금강의 모습과 충남의 문화를 볼 수가 있다.



| 신성리 갈대숲 |



| 동백정 |